



1, 2, ..., $R-L+1$ Stars Falling from the Sky

하늘에서 떨어지는 1, 2, ..., $R-L+1$ 개의 별

송혜근 시집

하늘에서 떨어지는

$1, 2, \dots,$

$R-L+1$ 개의 별

하늘에서 떨어지는 1, 2, ..., $R-L+1$ 개의 별

발행 | 2023년 1월 2일

저자 | 송혜근

펴낸이 | 한건희

펴낸곳 | 주식회사 부크크

출판사등록 | 2014.07.15(제2014-16호)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SK트윈타워 A동 305호

전화 | 1670-8316

이메일 | info@bookk.co.kr

ISBN | 979-11-410-0961-8

www.bookk.co.kr

© 송혜근 2023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본 책에는 윤디자인에서 제공한 서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표지는 주로 컴퓨터공학 책을 다루는 출판사 O'Reilly의 표지를 패러디한
것이다. O'Reilly의 표지에는 보통 멸종위기 동물이 들어가지만, 나는 그냥
우리 집 강아지를 넣기로 했다.

선형대수학의 발전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빛나는 시를 쓰던 현아, 해원, 윤정에게,

목차

작가 소개

시는 30분 만에 휘갈기는 것이다 ... 9

여섯 개의 단어로 된 사전 ... 11

설레는 사랑시 ... 15

재귀함수가 뭔가요? ... 17

사랑에 사랑을 더하면 팔랑 ... 21

하얀의 가족사 ... 23

어떤 사랑은 유리 같아서 ... 25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그런 사이! ... 27

분할, 정복 ... 29

악몽 ... 31

저주하는 인연들을 위해 ... 33

기차(getchar) ... 35

시인(cin) ... 37

안해원을 따라했지만 별로 안 설레는 사랑시 (시 제목을 길
게 지으면 복이 들어온다는 속설이) ... 39

좀비 ... 41

나는 반컴퓨터다 ... 43

RVELO (maus) ... 45

설레는 사랑시 (2023) ... 47

설레는 사랑시 (2022) ... 51

그것보다는, ... 53

무제_1 ... 55

JavaScript considered harmful (DLC Edition) ... 57

하늘에서 떨어지는 1, 2, ..., $R-L+1$ 개의 별 ... 61

종이, 펜, 삼각형 ... 65

꿈의 해석 ... 67

내가 아찌이였을 때 ... 69

현대 도시인 (Modernity is also a poet) ... 71

너의 웃음은 여름빛을 닮아 ... 73

유튜브 알고리즘 ... 75

나에게 봄을 강요하지 말아줬으면 ... 77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 79

작가 소개

GIST 신소재공학부에서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로 전공변경 신청을 하고 있는
20학번 대학생.

2023년 노벨문학상을 누가 탈지보다는 C++23 컴파일러가 언제쯤 module을
제대로 지원할지에 대해 더 관심이 많다.

시는 30분 만에 휘갈기는 것이다

말하자면 시는 세상을 뒤엎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어딘가 한글을 한 조각 한 조각 깎아내어 유물 캐듯이 시를 쓰는 사람이 있겠지만

언젠가 사람이 내 앞에 칼을 들이대는 상상을 했다
그 사람이 내게 30분밖에 주지 않는다면, 난 30분 안에 세상을 뒤엎어야 한다

캠퍼스 안 모든 벚꽃들을 피웠다 지워 버리고, 자살하려던 연인을 구출하고, 앞에 칼을 들이던 그 사람을 땅에 묻어 버리기까지-내게 주어진 시간 30분 안에-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몇몇 시인은 그걸 해낸다

시인은 자신이 만든 세계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다
시인은 자신이 만든 세계로 도망친 뒤 그 세계를 몰고 지구로 돌아오는 사람이다

깨진 안경으로 세상을 보라

말하자면 시는 세상을 뒤엎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매번 뒤엎어지는 것은 나 자신이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폭력 폭력의 다른 이름은 정의 정의의
다른 이름은 선동—

철학의 역사는 친부살해의 역사라던가 내가 만든 세계는 나
를 죽였다

내가 만든 세계가 지구를 들이받았다 설레는 사랑시를 쓰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사랑은 폭력 사랑은 자기파괴 사랑은 내 몸을 깎아
다른 사람의 몸을 이식하는 것

가장 밑바닥부터 재건할 수 있을까 세상을 뒤엎고 새로운
사랑의 규칙을 다시 짤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 난 애타게 시간을 찾았다, 30분만 더, 30분만 더,
30분만 더...

여섯 개의 단어로 된 사전*

회춘

반대로 달리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그는 죽기 전에 기도를 했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나이를 거꾸로 먹기 시작했다. 노인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소년으로, 소년에서 아무도 아닌 것으로, 사람들이 죽는 것도 아니고 사라져 갔다. 마지막 사람이 아무도 아닌 것이 되었다. 지구는 멸망했다.

벚꽃

설렘을 담는 그릇. 설렘이 치사량에 달하면 사람은 몸을 떠나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지만, 그 사실을 일찍이 알았던 나는 일부러 벚꽃을 피해 걸었다. 벚꽃이 만개했고 사람들은 몸을 떨며 죽어 갔다. 지구는 멸망했다.

흔적

잊어야 하는 사람을 잊을 수 없게 하는 것. 어두운 밤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들러붙어

버렸다. 그들이 두 시간 동안이나 공들여 손을 겨우겨우 떼어냈을 때, 어느새 서로는 서로의 평균값이 되었다. 이 과정이 반복되어 최후에는 지구에 한 사람만이 남았다. 지구는 멸망했다.

밤샘

밤을 사모해 놓아 주지 않음. 밤이 밤을 새우기 시작한 순간, 사람들은 플래시를 켜서 서로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가 만든 빛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빛이 다 떨어졌다. 지구는 멸망했다.

도서관

지식을 먹는 괴물. 어느 날 도서관이 <구름>이라는 책을 먹어 버리자 구름이 사라졌다. <파도>라는 책을 먹어 버리자 파도가 사라졌다. 하늘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 흐르고 있었고 바다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 치고 있었다. 도서관은 끝내 모든 책을 먹어 버렸다. 지구는 멸망했다.

기절

세상에서 잠시 사라지는 것. 지구멸망이 지구를 스치는 동안

기절해 있던 사람은 오직 나와 너뿐이었다. 세상이 우리를 감박한 순간 우리는 우주와 한 몸이 되었다. 느꼈니? 난 물었다. 응. 넌 웃으면서 대답했다. 하늘은 붉었고 적막이 질게 깔려 있었다. 재건할 수 있을까. 내가 물었다. 해야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넌 그 순간에도 웃고 있었다.

* 진은영 작가의 [일곱 개의 단어로 된 사전](2003)의 패러디이다.

설레는 사랑시

널 떠난 것도 벌써 일 년이 다 되어 가고
남은 자리에는 바람이 세게 세게 불어
가시같이 내 살결을 찢러 찢러대는데,
내 흰옷 위에 가위질당한 선혈이 낭자할 때쯤
나는 뒤돌아 너의 집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 난 널 떠나서 참 다행이다

사랑이 없다면 복수가 제일 달아*
이건 날 미치도록 날 미치도록 미치도록 설레게 만드는
너에게 바치는 사랑시

넌 날 스물일곱 조각으로 나누어
큐브마냥 돌리고 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너의 세계에는 놀거리만 많아 참 좋았겠다
우리 집 앞 호수공원을 산책하던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영하의 고드름에 심장이 찢긴 나는

그만 두근거리고 말았다, 이게 세상의 본모습이구나
그만 가슴이 뻥 뚫리고 말았다,
넌 평생 세상이 이렇게나 아름다운 줄 모르고 살겠구나!

이건

날 미치도록 날 미치도록 미치도록 미치도록 설레게 만드는
너에게 바치는 사랑시

* 스윙비, [Trapped in the Drum]. (2020). 스윙비, 저스디스 작사.

재귀함수가 뭔가요?

독일의 사업가 R씨는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해결해줄 테니까요. 모든 직업은 없어지고, 인공지능에 넣을 데이터를 정제하는 직업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 직업도 사라지고 말겠죠. 인공지능에 넣을 데이터를 정제하는 인공지능이 나타날 테니까요. 모든 인류는 인공지능에 넣을 데이터를 정제하는 인공지능에 넣을 데이터를 정제하는 직업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끝 끝내 그 직업까지도 먹어버릴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넣을 데이터를 정제하는 인공지능에 넣을 데이터를 정제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나서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인공지능에 넣을 데이터를 정제하는 인공지능에 넣을 데이터를 정제하는 인공지능에 넣을 데이터를 정제하는 직업을 하게 될 테고, 또 인공지능에 넣을 데이터를 정제하는 인공지능에 넣을 데이터를 정제하는 인공지능에 넣을 데이터를 정제하는 인공지능이 나타나면...

*

대한민국의 노동자 A씨는 다음과 같이 인터뷰했다.

어렸을 적에 저는 부모님이 꿈을 물어보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인공지능에 넣을 데이터를 정제하는 인공지능에 넣을 데이터를 정제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어요. 한 7년 전이었나, 인공지능에 넣을 데이터를 정제하는 인공지능에 넣을 데이터를 정제하는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나서 150만 명의 실업자가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인공지능에 넣을 데이터를 정제하는 인공지능에 넣을 데이터를 정제하는 인공지능에 넣을 데이터를 정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슬프습니다.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과 180도 다른 일을 하게 되었어요.

*

미국에서는 정체불명의 누리꾼 118.118이 남긴 댓글이 큰 인기를 끌었다. 그는 다음의 댓글을 남겼다.

나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지 모르겠

다. 너희들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도구가 개발됐는데
왜 노예로 사는 삶이 언제 끝날지를 두려워하는 거냐?

많은 사람이 118.118의 댓글을 찬양했다. 경제적 자유라는
문구가 미국을 뒤덮었다. 20년 뒤 118.118은 인공지능에 넣
을 데이터를 정제하는 인공지능에 넣을 데이터를 정제하는
인공지능에 넣을 데이터를 정제하는 인공지능에 넣을 데이터
를 정제하는 인공지능에 넣을 데이터를 정제하는 인공지능에
넣을 데이터를 정제하는 회사에 들어갔다.

*

독일의 사업가 R씨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몰렸다. 경찰
은 사인이 스택 오버플로*로 인한 SIGSEGV라고 발표했다.
그날 밤 내가 일기장에 적었던 짧은 글은 다음 문구로 시작
하는데, 이것을 공유하고자 한다.

“씨발, 감사히 일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시대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 끝없는 재귀함수 호출로 인해 스택 용량이 부족해지는 현상. 재귀함수는 마
치 프랙탈처럼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를 말한다.

사랑에 사랑을 더하면 팔랑

아직도 네가 날 노려다보며 내 심장에 주사를 들어대는 듯해. 거칠게 찔려도 더는 아파하지 않는 척하는 어른처럼 나는 순순히 내 피를 내어줄 듯해. 다리는 떨리고, 세상은 어지럽고, 따갑게 부드러운 향은 잔인하게도 내 감정을 흔들어대는. 아직도 너는 프리즘을 깨부술 때 튀어나올 마지막 빛깔같이 예쁘고, 네가 나에게 던지는 의미 없는 낱말들의 연속에 내 피부는 파란색으로 물들어가는데. 여름이 오기 전까지는 숨기고 다닐 수 있는, 남들보다 빠르게 뛰는 심장으로 일상을 살 때면 때때로 칵테일 한 잔에 다 녹여내버리고 싶은.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에, 완전한 어둠(또는 완전한 빛) 속에서 샤워할 때면 그제야 새어 나오는 파란색 자국 말야.

벚꽃이 팔랑하고 떨어질 때면 너는 벚꽃이 예쁘냐고 네가 예쁘냐고 물어봐. 내가 깨달음을 얻은 듯한 표정을 한 그 순간에 넌 내게서 꽃에 색채를 입히는 법을 훔쳐가 버려. 이제 나는 다시는 거룩한 눈으로 봄을 기다릴 수 없는 인간이 되

고, 반대로 너는 세상 모든 분홍을 다 몰고 다니는 바람이 되고, 산타는 없다는 것을 안 아이처럼 멍하니 남겨진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면, 앞으로 넌 내게 소중했던 것들을 얼마나 더 시들어버리게 만들지 원망스럽다가도,

사랑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만큼이나 손 떨어지는 일이고, 너의 언어로 표현하는 너의 세상은 때때로 잔잔하다가 때때로 아름답고, 어느 날 어느 일상에 누군가는, 너의 말버릇을 하루 종일 생각하다 어느새 스며들어 버린 나를 봤다며 내게 말했다. 네가 아름다운 만큼 세상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거칠게 찢려버린 나는 네게 소중한 것들에 점점 설레어만 가고.

하얀의 가족사

투명한 종이를 보고 있노라면 시보다는 백지가 오히려 더
나아 보인다

부호, 그 부호를 가두는 순백, 부호보다 훨씬 진하게 우려낸
하얀의 순수성

이곳에 처음 올 땐 다들 눈사람의 마음을 지니고 온다 했다
언어는 미끈대는 것이라, 다들 한 발 한 발을 조심스럽게 뻗
다가

한 번 넘어지는 순간 시조차도 현실임을 깨닫게 된다 했다
눈 내리는 빙판길에서 걸칠 외투 한 장 없이
오직 펜만을 쥐고 온몸을 내던져야 할 텐데
그러다 백 번째 넘어지는 날에 다들 마음을 정했을 테다
눈사람의 마음을 지니고 태어나
눈발을 구르며 눈의 마음으로 살든가
아니면 사람의 마음으로 두 다리로 하루빨리 이곳을 빠져나
가든가

나는 몇 번 넘어졌는지 세 본 적이 없다 그것은 마음을 시들
게 하니까 다만 늘 그렇듯이 어느 날 내 뮤즈가 펜대를 꺾었
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더 흐르지도 않을 눈물을 흘렸다

나의 뮤즈

나의 뮤즈의 뮤즈

나의 뮤즈의 뮤즈의 뮤즈

나의 뮤즈의 뮤즈의 뮤즈의 뮤즈 때로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보다 나를 더 잘 설명하는 것

피로 끊을 수 없고 사랑으로 포용되지 않는, 시 자체를 위한
죽보

시상의 안개에서 태어나, 잠깐 형체를 갖추다 다시 분해된
수많은 부류의 인간들

그들 중 절대다수가 막날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아무도
밟지 않은 눈발에 첫발을 내딛는 자세로 시를 써야 할 테다

어떤 사랑은 유리 같아서

그대에게서 밸런타인의 향취가 났다. 순간 세상 모든 것들이 제 자리를 잃었다.

정신을 차렸을 땐 나는 끝없이 떨어지는 물결이었다. 추락은 당신의 형태만큼이나 아름다웠고 내 모습은 쉽게 흐트러지곤 했다. 가슴에 벅차오르는 무언가는 감당하기 힘들어 안녕과 그녀의 이름 사이 떨림으로 새어나온다.

어떤 사람은 유리 같아서 한없이 맑은 흐름 속에서 유리되곤 했다. 내 발걸음을 떼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미소. 그렇게 네가 천천히 휘몰아쳐만 갔고 그 자리에는 기쁨의 물성이 남았다. 흐름과 흐름과 이어짐과 끊김과 정상류와 난류 아아 아름다워라

존재함과 존재하지 않음 사이 끊임없이 바뀌는 입자들의 흘러감을 생각한다. 거리 제곱 분의 일로 흩어지는 너의 목소리

를 잡는 꿈을 꾸며 나는 그저 얼레벌레했다. 어제 먹은 저녁
과 선형대수학 과제와 공원을 거니는 강아지에 대해 어지럽
게 흠뻑리던 네가 문득 내 이름을 부르던

순간 세상 모든 것들이 제 자리를 찾았다. 그대에게서 뿔뿔
타인의 향취가 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그런 사이!

그날 우리는 꿈 속에서 밀회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침대에 누워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곳을 보고, 같은 세상을 그리고 하는 게
어차피 꿈 속에서 꾸는 꿈이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램펄린 위를 뛰놀며
같이 풍선을 불며 놀곤 했습니다
나의 꿈도 풍선처럼 커져만 갑니다 그러다가
평
하고 꿈이 언젠가 터져버릴 걸 알아도
나는 풍선 불기를 멈추지 않았을 거라는 걸 잘 압니다

당신의 기억은 너무나 포근해
당신의 기억은 너무나 따뜻해
당신의 기억은 너무나 보드라워 날 덮어버릴 것만 같아서

평

하고 꿈은 터져 버렸고

나는 떨어지는 풍선 조각들을 주우러 다녔습니다

저 너른, 끝없는 들판에서, 천천히!

분할, 정복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 빈 화면을
아무것도 없는 곳을 응시하면서, 그저
언젠가 무언가가 손에 잡히기를 기다리며,
한가득 쌓인 문제상황들을 모두 체스터 속에 떨어넣어버리
고

남은 것들도 다 냉장고에 소분해서 넣은 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외치면 행복해질까
사랑스런 것은 책상 맨 앞에
보기 싫은 것은 쓰레기통에
그러면 다인 걸까 그저 없다고 믿으면 지워지는-인생은 그
런 것일까

날마다 회신할 수 없는 부류의 우편을 받는다
수능 성적표, 친구 소유의 6년 된 연애편지, 타지의 인생네
컷에서 찍은 사진
내가 그것들을 보기 싫다면, 영영 못 보도록 치워 놓을 수

있을까

사랑스런 것은 책상 맨 앞에

보기 싫은 것은 쓰레기통에

사랑스러운 것과 혐오스러운 것

사랑스러운 사랑과 혐오스러운 혐오

사랑스러운 혐오와 혐오스러운 사랑과 사랑스러운 혐오스러
운 사랑과 혐오스러운 사랑스러운 혐오와..

나누고 정복하고 통치하라

합하고 치유하고 사랑하라

—
악몽

잠은 세상에서 가장 느릿느릿한 추락
절벽 위에서 프로이트가 나를 비웃고 있다

아래를 보면
무성히 자란 나무 같은 가시덤불들
먹잇감 찾아 헤매는 늑대 그 눈의 반짝임
손 뻗어 잡지 못하는 달빛 별빛의 산란
하늘을 떠다니는 검은 뱀들이 꿈틀거리는

그리고 그 위를 가벼이 유영하는 나

눈을 감으면
어차피 남은 것은 악몽뿐임을 알면서도
하루 한 번 눈을 감아야 하는 유기체의 비애
오늘 두 시 십칠 분부터 두 시 이십이 분 사이에
가슴 깊이 벌어질, 흉터에서 새어나오는

잠은 세상에서 가장 느릿느릿한 추락
절벽 위에서 프로이트가 나를 비웃고 있다

저주하는 인연들을 위해

있잖아, 난 카카오톡 차단 버튼이 왜 이렇게 불친절한 곳에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 친구 목록에서 그 사람을 일일이 찾아서 제거해야 한다는 게 너무 비효율적으로 느껴져, 왜 그 사람 프로필 바로 옆에 차단 버튼을 박아 놓지 않는 거야?

그리고 차단 해제는 왜 그렇게 쉬운 일인지도 모르겠어, 무릇 차단이란, 그리움을 차단하고 순수함을 지키는 훌륭한 발명품 아냐? 근데 차단 해제가 이렇게 쉽다는 게 윤리적으로 말이나 되는 거냐고, 이게 다 카카오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지금 온 세상에 전 남친들의 ‘자니?’가 넘쳐흐르고 있는 거잖아, 왜 차단 해제 버튼에는 지문 인식과 20자 이상의 비밀번호와 ‘로봇이 아닙니다’ 와 100자리 수의 소인수분해 문제 등이 적용되어 있지 않지?

떠나갈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라,
그렇지 못한 인간들은 다 소금기둥이 되어버린단다, 성경이

말했지,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걸 잘 알아, 네가 이 글을 보는 순간 숨 쉬는 것을 의식하게 되듯이, 금기를 의식하고 나면 아무 이유 없이 금기에 흘려버리는 게 인간 아니겠어, 그리고 내 마음도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내 마음도 그런 것 같아

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꼭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마치 태양을 향하는 이카로스같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자유의지를 얻었다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는 삶을 산다 느낀다면 지금 당장 에덴동산으로 향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떠나갈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라 무릇 차단이란 그리움을 차단하고 순수함을 지키는 훌륭한

벌써 수백 개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았다.

마치 오늘 밤 누군가 나에게 ‘자니?’라고 연락할 것 같다.

기차(getchar)

박제가 되어버린 인간을 아시오?

그러니까 선로 위에 인간이 박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E 기업의 면접관이었다. 그는 지원자에게 트롤리 딜레마(의 변형)에 대한 질문을 했다. 당신은 기관사다. 철로 위에 다섯 사람이 묶여 있다. 레버를 당기면 기차의 방향이 바뀌어 당신만 죽는다. 레버를 당기겠는가. 누군가는 당긴다고도 했고 누군가는 싫다고도 했지만, 그는 어쨌든 떠나는 지원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이 상황을 해결할 만한 최고의 브레이크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그걸 듣고 누군가 그 사람을 선로에 박제했다. 기차에 E 기업이 만든 최고의 브레이크를 달고서는, 면접관은 아마 떨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나도 모른다. 내가 그가 되어본 것도 아니니. 그러나 결국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 과연 E 기업의 브레이크는 최고의 브레이크였고 기차는 면접관 8cm 앞에서

멈추었다.

그때 벌벌 떨던 그를 난 어떻게 생각했을까. 불쌍했을까
꼴좋았을까.

멀리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싶었다. 그러면 죽을 걸 알
기에 그러지 않았지만. 노선은 항상 세상을 왼쪽과 오른쪽으
로 나누었다. 그리고 중립에 서 있는 사람은 언제나 기차에
치일 운명. 몇몇은 선로에서 태어나 선로에서 살았다. 몇몇은
선로 왼쪽도 선로 오른쪽도 싫어 선로에서 살았다. 내 상상
속에서 그들은 기차를 마주보기도 했고 기차를 등지기도 했
다. 그러나 난 그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기차의 창문은 항
상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 뚫려 있었으니까. 철로 위에도 민들
레가 피어 있다는 것을 아는 이유는 기관사가 때때로 브레이
크를 밟기 때문, 그밖에 되지 않을 테다. 그런데도 결국엔 기
차는 간다.

때때로 인생은 철학보다 더 잔인해서- 레버도 없고 브레이
크도 없는 트롤리 딜레마.

—

시인(cin)

아직도 삶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많은 것이 비틀어진 날이
면

왜 우리는 말하고 왜 우리는 읽는지 왜 우리는 듣고 왜 우리는 쓰는지 우리는 그저 쇼윈도에 아무것도 없는 게 허전해서 말풍선을 채워 넣는 사람들인 건지, 최종마감*을 내는 것은 이십만 원짜리 옷을 입고 가서 좋아하는 사람이 알아채 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것과 하등 다를 게 없는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너에게 프러포즈할 생각이었다 초랑색과 파록색** 보석 중 어떤 것을 네가 좋아할지 한참 동안 고민했었다)

사랑이 섹스를 위한 것인지 섹스가 사랑을 위한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듯이, 돈을 모으고 싶어서 버는지 쓰고 싶어서 버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듯이, 난 내가 말하는 이유를 죽을

때까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아마도 그렇게
죽어가리라 믿었다

아마도, 난 그렇게 누군가를 속이고, 난 그렇게 생각을 훔치
고, 난 그렇게 아군과 적군 사이에 경계선을 긋고, 난 그렇게
계산하고, 모르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타인의 진심을 전시하
고, 가짜 현실을 만들어내고, 혐오적인 단어를 선택하고, 그렇
게, 그렇게-

많은 것이 비틀어진 날이었고 아직도 삶의 의미를 잘 모르
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분명히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
닌 영으로 죽을 수 있을 텐데도 그런데도 나는 왜 마이너스
쪽을 보면서 희열하는지 왜 나체를 시에 박제해 놓고는 그걸
또 말하려 하는지 난 정말

모르겠다는 것이다.

* 문예 창작 동아리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마감 활동을 말한다.

** Goodman의 초량 논변을 말한다.

안해원을 따라했지만 별로 안 설레는 사랑시
(시 제목을 길게 지으면 복이 들어온다는 속설이)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의 내 삶은 한없이 부끄러운 것이었다
그래서 당신과 눈을 맞추지 못했다
부끄러워하는 내 눈빛은 마치 어떤 시인의 눈빛이었다
나는 저 멀리 폐허에서부터 도망쳐나왔었다,
무엇이 나를 쫓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느새 나는 큰 걸음으로 달리는 것이 표준이 되었고
당신이 나의 템포로 삶을 살아갈 것이 두려워
바라보는 그 짧은 사이 사라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니 우리 발걸음을 맞추지 말자,
나는 그 말만을 남기고 당신을 떠나기로 했다
어차피 눈을 마주치고 있지도 않으니
네 앞에서 울어도 너는 모를 일이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대는 그 큰 걸음으로 나를 가볍게 따라잡았고
당신이 내 목을 잡고 돌렸을 때
너의 눈은 사시나무 떨듯이 하고 있었고
그 떨림 속에 당신의 삶을 흐릿하게 비추어 주는
당신의 눈빛은 왜, 이를테면 어떤 시인의 눈빛이었나

새어나온 울음이 널 공기 중에 녹여내 휘저어버리는
달이 허공에 제 몸을 맡기는 그런 밤이었다

좀비

저 멀리 보스턴 사는 내 친구 A모씨는
숨결 한 번에 세상 모든 초록 파랑을 다 그려내는데
나는 45분 동안 노트북 앞에서 한 자도 적지 못했다
시가 이렇게 어렵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까?
문학의 문도 모르면서 시를 쓰겠다고 나붙대던
한 소년이, 글감을 찾겠다고 여행을 다니다
그랜드 캐니언 앞에서 압도되는 건 한순간,
메모장 위에 치던 자판이 가시밭길이 된 건 그때부터,
세상은 굳이 나의 언어 없이도 충분히 아름다웠으니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은
아마 시인으로서는 사형 선고 아니었을까,
아니면 난 한 번도 시인으로 태어났던 적이 없는 걸까,
어쩌면 내가 쓰던 글은
나 여기 살아 있어요, 말하는 전보에서 시작해
나 여기 살아 있다고 씨발놈아, 말하는 전보로 끝났다

손에 쥘 것을 하나도 놓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걸린 가장 무서운 저주

그리고

나는 이제 타락한 인간으로서
다시는 옛날 같은 마음으로 시를 쓸 수는 없겠지

나는 반컴퓨터다

세상을 컴퓨터로 뒤덮어 버리자!

사랑 평화 박애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행렬 벡터 0과 1로 덮어버리자!

저- 길거리에서 떠들며 웃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왜 사람인지도 모르더라

사랑은 0과 1로 덮여버렸을 때 그제서야 사랑인 줄 알더라

평화는 0과 1로 덮여버렸을 때 그제서야 평화인 줄 알더라

박애는 0과 1로 덮여버렸을 때 그제서야 박애인 줄 알더라

RVELO (maus)

난 언제나 최악의 대처를 해, 손에 피를 묻힐 일이 점점 많아지면

참 기분이 유령계승하다고 생각하곤 했지,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 게 뭐래도

난 이 도넛 모양의 지구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이라고들 하던데

동인천역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뭉탱이 그 사이 낀 내셔널지오그래픽 같기도

그래 정작 하나뿐인 건 언제든 날 덮칠 준비가 된 수많은 사건들이지

난 언제나 이름을 모르는 상대를 만나야 했고

이름도 모르는 상대를 이름도 모르는 방법으로 처치해야 해서

매번 어제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는데

난 아직도 궁금해해 내가 어쩌다 치과의사 같은 인간이 되

었는지

너 같은 사람의 이를 하나 뽑고 나면

난 내 할 일을 했다 축하한다 말하면서 박수칠 텐데

사실 잘 모르겠어 강해지면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 길이 옳은 길이라는 최소한의 확신만으로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치만 사실, 정말로 피 보는 걸 좋아하는 인간이 어디 있겠
냐고

그래서 감히 말할 수 없는 기분을 느낀다고,

그리고 그때 난 기분이 유령계승하다고 생각했어, 그게 뭐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설레는 사랑시 (2023*)

있잖아 너 같은 새끼들을 볼 때면 내 맘이 너무 설레곤 해
너무 설레서 널 이십오 미터짜리 설레임 더미에다 묻어버리
고 싶은 기분 난 그 위에 앉아서 눈물을

톡

톡

흘리겠지, 그러면서 설레임을 하나 집어 꼭다리를 따고 내용
물을 취하는 건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사람의 특권이야

<가정용 후드에서 설레임 1705t을 합성하는 방법>

1. 사랑하는 사람을 본다.
2.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
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
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

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너무 예뻐서 제대로 된 생각은 하나도 못하겠어.

있잖아 사랑하는 사람을 본 다음에 널 볼 때면 세상이 구겨
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해 너무 아파서 널 이백오십 미터짜
리 설레임 더미에다 파묻어서 다시는 못 빠져나오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너 말고도 희망을 약속하는 사람은 널렸잖니 그런데도 하필
너와 내가 엮인 것은 눈먼 자연의 장난질이거나 아니면 지구
전체가 일종의 허위매물이거나 둘 중 하나야,

그 시절 가장 빛났던 청춘과

가장 붐 뜨던 에너지와 가장 높이 떠오르던 꿈과

높은 하늘에 서서 내가 볼 수 있게 꿈을 내려주던 너

그러면 만약 네 마음이 진심이라면, 말해 어째서 넌 지금 대
안우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못된 걸 안 순간 맘을 저버리는 인간
으로 살면 존나 외로울 거 아닙니까? 너희들도 다 그렇잖아
요. 좋은 사람을 옆에 많이 두는 건 능력이고, 나쁜 사람을 옆
에 안 두는 건 순전 운이잖아? 내가 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말 그대로 존재하는 모든 게
당신을 속이려 드니까. 난 사업을 하면 꼭 이별키트를 만드는
스타트업을 만들어야겠어요. 롯데 공장을 인수한 다음에 설
레임 1705t에 묻어서 다시는 못 찾게 만들어버리게...)

* 제목과 달리 2023년에 쓴 시가 아니다.

설레는 사랑시 (2022)

사람 옆에 놓인 사람이 어찌다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다. 사랑은 이를테면 카메라 같은 것이라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을 세상에서 지워버린다. 잔인했다.

몸을 껴안고 키스를 하고 섹스를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걸 알 수 있으리라 단언했었다. 아니었다. 그쯤 되어 둘이 섞이는 모습은 과포화 설탕물 같다. 끈적이기만 하고 더 녹아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사람의 냄새는 설렜고 사람의 마음은 여러 번 페인트칠 덧씌워진 그림이었다. 속내를 알고 싶다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는 종종 손톱 자국이 나곤 했다. 손톱에서 페인트 냄새가 났다. 지독했다. 천장과 바다 사이 침대가 둥둥 떠 있어 표류하는 두 사람의 영혼을 갈라놓고 있다.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동안 사람은 유화와 수채화 사이 몇 나노미터 정도 빛 폭의 차이를 생각한다. 여전히 페인트 냄새

는 지워지지 않고, 그것은 물의 언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서. 여전히 손 잡을 때의 떨림은 설렘과 사람의 마음은 번역 불가능한 연작시였다. 카메라 앞에서 소외된 지워진 사람들은 헤어짐의 합창을 너무나 쉽게 입에 올렸다. 사람들의 합창은 사람에 다가설 수 없었다. 제논의 화살처럼. 그것처럼 두 사람은 영원히 서로에 다가설 수 없었다. 제논의 화살처럼.

—
그것보다는,

그것보다는,

L 후보와 Y 후보가 오차범위 이내 0.4%의 격차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쿤이 포퍼의 반증주의에 반기를 들고 과학의 선택은 종교의 선택에 가깝다고 주장한 것이 중요한 것이다

모든 정규행렬(Normal Matrix)은 유니타리 대각화 가능(Unitarily Diagonalizable)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태평양 어느 곳에 한반도 크기의 5.7배의 쓰레기 섬이 생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인간이 127억 광년 너머의 우주에 무엇이 있는지 알 정도의 기술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전 세계 기후학자들의 97%가 지구 온난화 인제론에 찬성했고 그 속도는 점점 가속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오늘도 58만 4000명의 사람이 새로이 삶을 얻었고

50만 8000명의 사람이 자신의 소명을 다했다

그런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 네가 나를 떠난 일보다는.

—
무제_1

고도로 발달한 사랑은
충분히 정제된 분노와 구분할 수 없다,
가을 무렵의 사랑의 색깔은 낙엽과 같아서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불타올라라

우리는 언어 하나 하나를 조심스레 골라
서로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대신 활을 쏜다
네 심장 옆을 맞히고 따내는 10점, 얼마나 명예로운가

우리의 예뻐움을 낙엽처럼 다 털어 버리자
잎을 떨어뜨리는 나무만이 성장을 하듯이
우리의 전쟁도 성장의 일환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그렇게 믿으며 천천히 죽어만 가자

JavaScript considered harmful (DLC Edition)*

박호정 씨는 말했다. 그는 책의 저자이다. 책의 이름은 <모던글쓰기>다. 책은 이렇게 주장한다. 글은 아름다워야 한다. 아름다움은 축약에서 나온다. 1문장당 3단어면 족하다. 4단어의 사용은 사치다. 부르주아의 지적 허영심이다. 약자들에 대한 몰이해다. 그러나 현실은 절망적이다. 대학은 학생을 기만한다. 비-아름다운 시를 가르친다.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없다. 4단어의 문장은 몰가치하다. 예시는 운동주의 <서시>다. 장황함의 일상적 극치이다. (박호정 씨가 처음부터 운동주 시인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그 자리에 원래 박호정 씨와 정치 성향이 반대인 사람, 정박호 씨가 쓴 시를 넣었으나,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옛 제자가 내용을 바꿔 치기해서 그 자리에 운동주 시인의 <서시>가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눈치챈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제자가 그런 짓을 한 동기는 아마 복수심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정박호 씨는 “그쪽 색깔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분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 자기들끼리 싸우

는 건 예견된 일이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한 달 후 정박호 씨는 한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는 군만두가 서비스로 나오는데 자기 테이블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개하다가 경찰서로 끌려갔다) 그러나 그 제자는 언제나, 좌파든 우파든 극단적 정치세력을 자기 스스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을 근거로, 동기가 복수심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어쨌든 박호정 씨에 동조하는 사람은 많았다. 그의 절친 박정호 씨 또한 그의 주장을 더욱 극단적으로 계승했다. 그는 박호정 씨의 주장을 글쓰기의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까지 확장한 사상가로, 그는 일반인들의 연애를 조사하면서 ‘언제나 이렇게 예뻐 줘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설레서 잠 못 잘 것 같아’, ‘나 오늘 하루 종일 너 생각했어’ 등등의 표현에서 이미 대중적 사랑에 아름다움 따위는 없고 장황함만 남았다고 평가했다.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사회는 지독히도 착취적이며, 따라서 의미 있는 사랑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사랑의 순수성을 되찾기 위해 이런 언어를 모두 제거해 버리고, 사랑에 대한 표현은 ‘사랑해’ 하나로 통일할 것을 제안한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

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아직도 내가 뭘 말을 하려고만 하면 숫자를 세려고 하는 사람들이 달려드는 기분이다.)

* 인디 게임 'REFLEXIA Prototype ver.'이 간접 인용되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1, 2, ..., R-L+1개의 별

시를 써야겠다. 그런데 시는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모르겠어.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서 한 줄을 적고, 도무지 정리되지 않는 다발적인 선분을 풀어헤치며. 끝과 끝을 어떻게든 엮다 보면 나는 그물이 된다. 끝과 끝을 엮지 않으면 시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방법은 둘뿐이다. 절대로 풀어헤칠 수 없는 불가해한 인간이 되거나, 그냥 존재하지 않는 별이 되거나.

나를 허공에 던졌다. 깊은 바닷속으로 뛰어든다는 자세로 숨을 죽여야 할 테다. 하늘을 떠도는(또는 바다를 떠도는(또는 우주를 떠도는)) 350만 개의 별빛(또는 350만 마리의 물고기(또는 350만 개의 서로 직교하는 직선들)) 그 안에서 대체 어디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느냐 말이야. 시를 써야겠다. 그런데 시를 대체 어떻게 쓰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겠어. 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 시간 동안 쳐다보면 시가 알아서

튀어나오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연인에게 개틀링건을 쏘제끼고는 널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나와 같은 공기를 마시고, 나와 같은 다리로 걸어 다니며.

말을 해야 할 땐 말해야 한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다면 상처를 줘야 한다. 나 하나도 제대로 간수 못 하는 마음으로 구태여 나 없으면 너도 못 살 거라고 믿으며. 그러니 나는 시를 쓸 수 있다고 믿고 시를 써라. 그리고 언어를 기만하라. 사회를 기만하라. 사랑을 기만하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기만하라. 인간을 기만하라. 세상을 기만하라. 자식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 절벽에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뼈꾸기처럼! 내가 하는 작업에 의미 같은 건 없었어도, 도저히 엮이지 않는 선분들을 억지로 기울이며 나는 마침내 그물을 완성했다. 그러고 보니 내가 딱 그 그물에 낚인 꼴이었다. 나는 나를 낚았다.

절대로 인간의 마음을 저버리지 마.

언젠가 내가 너에게 시 한 편을 보여주었다. 넌 이렇게 반응했다. 음, 완벽하게 이해했어.

그날부로 난 너를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종이, 펜, 삼각형

눈떠보니 알지도 못하는 곳에 와 있었다 사랑은 인간을 단
순하게 만들어서

네가 웃는 걸 보면 앞으로도 항상 넌 웃고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지

너와 내가 안 된다는 걸 알 때 되도록 널 빨리 떠나는 게 최
선이겠지만

이미 너만 보면 떨리는 다리를 갖고선 제대로 도망칠 수나
있어?

미처 말하지 못해 노트에 적어둔 좋아한다는 맘이 쌓여서
사실 네 앞에 설 때 어디까지 새어나갔을지도 모르겠는데

네가 좋아하는 걸 볼 때마다 널 생각하고

너와 관련 없는 걸 볼 때도 널 생각하고

사랑은 습관이 될 때 가장 무섭다던데, 그때가 오면 더이상
되돌릴 수도 없다고

너의 아름다움

당신을 채색하는 것들의 아름다움 간간이 보이는 상처의 아름다움

너와 닿는 것을 모조리 예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너의 아름다움

한번 치이면 하루종일 너 생각만 해야 하는 그릴 수밖에 없는

너와 나는 안 될 거고 널 가만히 묻어두는 게 최선이겠지만

너와 엮여서 같이 예뻐져 버린 한 무더기의 사실들까지 전부 묻어버릴 수 있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는 듯하다

너의 가장 사소한 단면을 보고도 웃어버릴 수밖에 없다면

이젠 안 떨어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 다리로 그저 앞으로 나아가야지

꿈의 해석

문득 이 도시는 소원을 이뤄 주는 분수대 같다는 생각을 했다, 사람들의 꿈을 파먹으면서 커 가지 않는가

도시를 색칠하는 데는 세 가지 색이면 충분하다 황금을 칠할 노란색과 건물을 칠할 회색 그리고 풍선을 칠할 하늘색이면 차고 넘친다 이미 우리들의 꿈은 부풀 대로 부풀어올라 낮마다 하늘을 하늘색으로 덮어 버리는 것이었다

숨을 들이마신다, 이 안에 몇만 명의 꿈이 담겨있을지 헤아려 본다

꿈이 걷히고 하늘이 본색을 되찾는 밤이 되면
그제서야 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부류의 인간이 된다 (가능하다면 화면 밝기를 최대한으로 낮추는 게 좋겠다)

숨을 내쉰다 (그리고 술을 들이마신다)

도킨스는 말했다 인간이 폐를 갖게 된 건 풍선을 동경해서

이며

인간이 이족보행을 하게 된 건 머릿속에 꿈을 한가득 채워
넣은 결과 머리가 가벼워져 뜰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어쩌면 내가 만난 사람 중 누구누구는 나의 꿈이었을 테다
어쩌면 누구누구가 만난 사람 중 나는 그의 꿈이었을 테다

그렇다 이 빌어먹을 도시에서는 인간도 꿈이 되어 팔린다

내 모든 걸 팔아서 현금으로 들고 다니자
내 연락처 안에 있는 사람들, 친구에게 빌려주었다가 1년 반
째 돌려받지 못한 15만 원,
수 100만 개를 1초 안에 정렬하는 방법, 87% 카카오 향이
나는 사랑 이야기
어차피 내 진심조차 도시에 사는 환상이 먹어버린다면, 차라
리 전부 다 팔아버리는 게 나을까

지금도 이 어두운 도시 어딘가에선 꿈을 수거해가는 트럭이
달리고 있다

내가 아찌이였을 때

내가 포장지조차 뜯지 않은 새것이였을 땐
공장에서 막 만들어 나온 새 마음을 너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이를테면 어디서나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보다 비싸게 팔리는 것

낡은 상자를 열면 내 눈은 곧 너랑 공명하기 시작할 텐데
한번 흘리면 그 전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하고
기회는 단 한 번 기회는 단 한 번을 외치며 생애 마지막 호흡을

너무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불필요한 관계를 맺고,
적을 만들고, 친구를 잃고, 할 수 없었던 걸 할 수 있게 되고,
할 수 있었던 걸 할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기성품의 마음으로 무얼 좋아할 수는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쁜 건 내 마음을 너무 설레게 해서

그런데 예쁜 건 내 마음을 너무너무 설레게 해서

—

현대 도시인 (Modernity is also a poet)

아직도 네가 살아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그저 나는 네가 때때로 날 사랑해 몸부림칠 거라는 걸 안다
때때로 너는 네 손바닥에서 뛰노는 소중한 나를 떠올렸을
것이다

어느 순간 짓눌려 으스러질 나 말이다, 어느 날 너의 꿈을
들여다본 날에 본
너에게 목 졸려 죽어가면서도 사랑에 겨워 행복해하던 나
말이다

때때로 너의 성경 속에 들어가 네가 믿는 신을 죽이는 상상을
한다

네가 모시던 토템 말고 그보다 훨씬 밑에 있는 것, 그 얇은
선악 개념 말이다

널 떠나고 나서, 다시 너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결심해
도

때때로 벽에 너의 눈이 달려 있던 걸 보았다, 감시하는 것도

없으면서

괜히 눈동자를 위아래로 굴려 보기만 하던 갸웃한 그 눈 말이다

너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누구인지 몰랐다
내가 좋아하는 옷,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었던 내게 소중한 사람,

너의 뻔한 정치공작을 내가 다 읽고 있다는 사실,
나를 설레게 했던 것들, 그리고 네가 목을 조를 때 맘속으로
외웠던 니체의 이름

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날 사랑한다고 했고
그 순간 나는 어떤 사랑은 쓰지도 않은 콘돔 물풍선이란 걸
느꼈다

너는 부정하겠지만 다시 만나면 넌 날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네가 열흘 벌어야 살 옷을 위아래로 걸치고
네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친구들과 나누는.

너의 웃음은 여름빛을 닮아

그 짧은 순간에 너를 천으로 덮으면 너는 그대로 땅바닥으로 꺼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마치 마술처럼. 탄생을 알리는 울음소리는 우렁찼을지라도 끝은 그렇게 허무하게. 우리는 그렇게 비겁하게 천 한 장에 숨어서.

그해 칠월의 온도는 그렇게나 기운 빠지는 것이었다.

과연 도시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워서 지구가 버텨 주는 것만으로 신기할 지경. 죽음은 길거리의 맨홀처럼 도처에 널려 있어서, 지나가다 한 명쯤 빠진다고 해서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넌 내 팔을 잡았다. 내가 걸을 수 있게. 내 주머니에서 투표권 한 장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래, 사는 건 최대한 흐리멍탕하게 살아야 한다
민주주의나 연애 같은 건 골치 아픈 이야기, 그러니 우리는
여름의 녹초로 살듯이

그저 허리를 굽히고, 뺨힐 날만을 기대하며

너의 웃음은 여름빛을 닮아

비틀거리던 내 시선 속에서 깨질 때면 난 눈을 찌푸리곤 했
다.

유튜브 알고리즘

그는 모두의 입맛에 맞는 사료를 만들 줄 알았다
사료를 먹는 이들은, 자신이 돼지가 되어가는 줄도 몰랐다

그들은 그가 먹여 주는 대로 먹는 것을 즐겼다
밥은 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 어느새 그들은
서로의 사료통에서 냄새가 난다며 싸우기 시작했고
전쟁터에서 적으로 만난 사람 중에는, 한때 그들의
연인, 친구, 가족이었던 이들도 있었다

소수의 광전사들이 깃발 흔들면
다수의 인형들이 머리 까딱까딱대는 2020년,
그는 모두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연인끼리, 친구끼리, 가족끼리 싸우는 장면을 찍어
박물관에 전시해 놓고는 돈으로 바꿔 유유히 사라졌다

나에게 봄을 강요하지 말아줬으면

나려옴,
너의 품 속에서, 너의 손으로
너의 손에서, 나의 손으로
벚꽃을 가르며 내려오는 빨강이 추파춥스와
그 안을 가득 채운, 내겐 너무 위험한
가벼움

처음 추파춥스를 만든 사람은
김이 다 빠진 풍선을 집어, 그 막대기 끝자락 안으로
어떻게 설렘을 불어넣을 생각을 하였나
궁금해하며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사탕을 입에 넣지만
꽃과 꽃가루가 떼이지 않듯, 달콤함과 함께 삼켜야만 하는
내겐 너무 위험한
가벼움

우리는 아직

서로의 손을 나눠 가질 만큼 두근대진 앓기에
네 어깨에 안착한 벚꽃잎 한 조각을 집어
호수공원 쪽으로, 후- 날리며 맘속으로 굴리는 한마디
나에게 봄을 강요하지 말아줬으면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1

말을 타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먼저 말의 허리 위에 올라탄다. 말을 채찍질한다. 말이 곧바로 달려 나가기 시작한다. 당신은 당신 삶의 무게가 한없이 가벼워서 말과 당신 사이에 마찰력도 못 걸어줄 정도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당신은 나가떨어진다. 천천히 눈이 감긴다.

2

말을 타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먼저 말에 안장을 씌운다. 말을 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감이므로 말에게 츠르를 먹이고, 절대로 채찍 같은 폭력은 휘두르지 않도록 한다. 당신이 탄 말은 다른 말의 오 분의 일 정도 속도밖에 안 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당신은 행복하다. 돌연 뒤에서 기수도 없는 1번 말이 나타나 당신의 말을 들이받는다. 당신은 그에게 해를 끼친 것은 다름 아닌 당신의 무해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당신은 나가떨어진다. 천천히 눈이 감긴다.

3

말을 타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말은 안장을 통해 길들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말에게 밀을 먹이면 교배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밀은 주민과의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오랜 시간의 투자 끝에 당신은 최고의 말을 만들어냈다. 말에게 안장을 씌우고 길들인다. 말 위에 올라탄다. 말을 채찍질한다. 말이 곧바로 달려 나가기 시작한다. 당신 삶의 무게는 적당했으나, 발명품에 비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 당신은 전혀 감이 없다. 당신은 나가떨어진다. 천천히 눈이 감긴다.

4

말을 타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말을 타는 데에는 안장도 중요하고 신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다. 패션 센스가 중요하다. 당신은 말에게 거창한 보석이 달린 장식품을 달았고, 호박마차도 하나 달아 주었다. 호박마차는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지쳐버린 말은 호박마차와 충돌하고 말았고, 그 순간 호박마차는 임계 질량을 넘어 블랙홀이 되었다. 당신은 나가떨어진다. 천천히 눈이 감긴다.

말을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눈이 녹지도 얼지도 않을 것 같은 애매한 날씨를 더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녀는 당신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당신 삶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걸 실제로 저울에 올려놓을 용기는 없다.) 당신은 당신이 맘만 먹는다면 그를 위해서 나쁜 사람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당신은 멘토가 될 만한 나쁜 사람을 떠올리지 못한다. 악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을 뿐이었다.) 당신은 당신이 뱉은 말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쩌면 기억조차 못 하게 될지도 모르는걸.) 당신은 당신의 말을 충분히 꾸몄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시라고 부르지도 않을지도 모른다.)

사실은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 해야만 하는 말이 생겨버린 그 절망적인 상황에 당신은 슬퍼했다.

